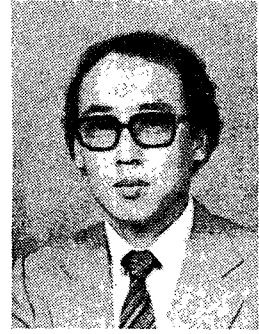


愛國: 責任感과 공동체意識

— 8·15光復에 생각하는 環境保全 —



朴 昌 根

〈社〉 環境教育會 委員長

1. 愛國의 순간—國家意識

지난 3월경으로 기억한다.

연대 權肅杓박사를 만나려고 新村노타리를 돌아서는데 베케한 최루탄 가스가 눈을 자극했다. 그리고 멀리서 학생들의 구호합성과 해산을 종용하는 경찰의 스피커 소리가 범벅이 되어 달려왔다.

延大 입구, 굴다리에서 경찰의 제지로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신분을 밝히고 세브란스 病院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삼엄한 경계망은 용납하지 않았다.

우루루 돌맹이가 날아왔다. 이어서 시커먼 장갑차(테모 진압용 특수 차량)에서는 최루탄이 발사되고, 延大 교문을 사이에 두고 테모 학생과 경찰이 맞 서고 있었다.

학생들의 구호는 다분히 정치적이며, 선동적이었다. 듣기에 민망한(?) 요구도 튀어 나왔다. 일순 바람이 경찰쪽으로 불어 최루 가스가 날아왔다. 그러자 학생들이 와-아 합성을 지르며 교문을 박차고 길거리에 나왔다. 당황한 경찰은 얼마간 후퇴하더니 다시 학생들을 교문쪽으로 밀어 붙이려 몰려 갔다. 밀고 당기는 속에서 돌이 날고, 최루탄이 터지고, 합성과 경고의 스피커가 범벅이 되어 흡사 전장터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어디에선가? 하기식의 애국가

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 그 자리에 부동자세가 되어 延大 쪽 태극기를 향해 섰다.

페퍼버그를 쏘던 경찰도, 돌맹이를 주워 던지려던 학생도, 서로 밀고 당기던 학생과 경찰, 모두가 한 순간 국기를 향해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것이었다.

코 허리가 찡해 오는 감동. 나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분명 최루탄 가스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祖國愛! 그 감동의 현실이 목구멍 깊숙히에서 북 바쳐 오름을 어쩔 수 없었다.

며칠 前(L.A. 올림픽에서 우리가 中共과 농구 경기 한판을 벌였던 날) 밤 2시 넘어 까지 T.V 앞에서 中共과의 농구 경기를 보다가 우리 팀이 이기자 나는 나도 모르게 만세를 부르고, 이방 지방 다니면서 자는 애들을 깨워, 함께 만세를 부르고, 몇몇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기분 좋아 했었다.

그후 나는 애써 T.V앞에 앉아 L.A.올림픽의 승전보를 기다리게 되었다. 휴가도 못가는 무더위 속에서 더 할 수 없는 청량감을 주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낮에도 유도 「하형주」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을 만나, 더위가 싹 가시는(?) 상쾌함을 맛 보았다.

왜 우리 선수가 이기면 기분 좋을까? 피는 속

일 수 없기 때문인가? 피란 무엇인가? 동포란 무엇인가? 아니, 그 동포들이, 형제들이, 같은 핏줄이 모여 사는 祖國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솔한 愛國者를 만났다. 祖國을 日帝에 빼앗기고, 만주에서, 미국에서 오직 祖國의 解放만을 위해 自身을 희생했던, 독립 운동가 그리고 光復의 祖國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여러 분야에서 愛國한 愛國者.

그러나 나는 이름난 愛國者보다는 無名의 愛國者, 政治的 愛國者보다는 非政治的 愛國者를 더는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래서, 日本에 歸化는 커녕, 不利益을 알면서도 이름 석자도 바꾸지 않았던, 어느 프로 야구 선수를 좋아하고, 얼마전 英國의 實業家와 결혼해 한국의 國籍을 떠난 어느 Violinist를 제일 슬퍼한다.

그뿐 아니다. 신문에서 L.A. 올림픽 기사를 보다가 L.A.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명단을 보고, 내 눈을 의심한적도 있다. 누구라고 하면, 다 알 政治家, 藝術家, 體育人, 퇴역將星 등 많은 有名人들이 L.A.에 이민 가서 살고 있다니, 슬퍼지다 못해 한심한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海外에서 더는 祖國을 위해 愛國하고는 있겠지만...

나는 愛國이란, 責任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게는 祖國에 대한 責任에서 부터 작게는 社會와 個人的 責任에 이르기 까지 “責任지는 일”이 곧 愛國이라고 믿고 있다.

責任진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성실과 노력 그리고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적당히 얼버무려서 되는 일은 責任지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政治도 責任政治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甲」이다 하면 끝까지 「甲」이지, 때에 따라서 「乙」도 되고 「丙」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敗戰 獨逸과 日本의 경우 많은 政治家 뿐만 아니라 學者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自殺했던 경우를 우리는 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日帝時代, 中國에서 아편장사나 했을 친구가 解放이 되자 먼저 달려와 자기가 中國에서 獨立運動을 했다고

우기고, 李博士 밑에서 충성을 다짐하더니, 4.19가 일어나자 自由黨은 독재 때문에 부패했다며, 4.19야 말로 진정한 民主主義의 상징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찬양했다. 그러나 곧 5.16에 의해 朴正熙 대통령이 집권하자, 4.19는 철 없는(?) 학생들의 의거였다고, 역시 國家는 힘에 의해 支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第5共和國을 만나자 언제 朴대통령을 지지했느냐 싶게, 그동안 “유신”인지 된지 때문에 어쨌다며... 이제야 말로 民族에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고 입에 거품을 문다.

한마디로 非愛國的이 아니라 害國的인 행동이며, 賣國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2. 愛國의 사명 - 責任感

이제 光復 39周年을 맞는다.

그 어느 때 보다도, 祖國을 깊이 생각하고 愛國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光復後 40年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만큼 성숙했고, 經濟도 公害를 불러 올 정도로 發展했고, 文化도 올림픽을 유치해 올 만큼 신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지척에 敵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한 날, 한 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장속에 살지만, 國家의 國防力이나 國民의 安保意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현재, 망나니의 철 없는 위협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그대신 보이지 않는 敵을 경계하는 國家의 힘과 國民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즉, 人口增加와 都市化, 產業發展에 따른 環境汚染이라는 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號, 詩論에서도 밝혔듯이, 環境保全은 보이지 않는 敵으로 부터 우리의 祖國을 지키는 나라 사랑의 길로, 獨立運動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日帝時代는 그래도 日人이라는 보이는 敵이 있었지만, 지금은 環境汚染이라는 보이지 않는 敵으로 그 敵을 경계하고 막는 일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총, 칼로 빼앗긴 나라는 다시 총, 칼로 되찾을 수 있지만, 環境汚染의 경우는 총, 칼은 물론 탱크, 미사일등으로도 퇴치 할 수 없는 무서

은 敵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環境汚染을 막고, 環境을 保全할 것인가?

方法은 하나, 責任을 지는 것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環境을 責任지는 것이다. 그 길만이 環境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環境에 대하여, 政府도 責任지고, 企業도 責任지고, 國民도 責任질 때만 우리의 環境은 汚染이 안되고, 보다 맑고, 밝고, 쾌적해 질 것이다.

3. 愛國의 길-共同體

흔히, 우리 民族은 個人的으로는 뛰어나게 우수하지만, 둘 이상 모이게 되면 오히려 약해진다고 한다. 그 단적인 例로, 20年 전에 브라질로 이민간 S씨의 증언을 소개한다.

당시 서울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던 S씨는 서울에서 서로 친한 15가구가 함께 브라질로 이민가서 살기로 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매일이나 시피 가족 대표들이 모여, 브라질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그럴 수 없는 一體感으로 화합이 되었다고 한다.

출발일 임박해서는 성대한(?) 15가족 파티에 마지막 祖國觀光등도 함께 돌아보는 등, 글자 그대로 똘똘 뭉쳤다고 한다.

그러나, 祖國을 떠나, 브라질의 상·파울루에도착하니, 갑자기 생판 낯선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었다. S씨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호소하면서, 각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共同生活할 것을 얘기하고, 농토와 집 단 부락을 이룩하기 위해 각자 갖고 온 돈을 내놓으라니까 서로 눈치만 보며, 돈을 내놓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래서는 모두 죽는다고, 集團協同을 간곡히 호소하자, 모두들 약간의 돈만 내놓으면서, 그것이 모두라고 발뻘해, 어쩔 수 없이 아주 소규모의 농장을 구입해 운영하는데, 서로 누가 더 많이 먹고, 더 쓰는지 감시할 뿐 그 농장 자체를 키울 관심은 안 보이더라는 것이다. S씨가 일단, “키워 놓고 잡아 먹자”고 호소했지만 서로 경계하고, 시기할 뿐이고, 더러는 이 集

團農場이 실패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더라는 것이다.

결국 S씨가 구상한 15가족의 集團이민은 1년여만에 실패하고, 모두 소원대로(?) 각자 독립 생활로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것은 없던 돈이 어디서들 나왔는지 각자 사진관도 내고, 식료품 가게도 내고, 그리고 큰 아파트를 얻어 이사 가더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共同體 의식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오직 홀로 성공해 보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이 얼마 못가서, 사업에 실패해, 일부는 歸國하고, 또는 日人이나 브라질인 밑에서 고용살이 하고, 극히 몇몇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을 뿐이란단다.

나는 S씨의 이 移民史를 항상 서글픈 교훈으로 자주 이야기 한다. 물론, 지금은 훨씬 團結力이 強해지고 共同體意識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남의 나라 특히 日本이나 中國 또는 獨逸인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個人的으로는 우수하지만, 集團的으로는 약한 國民性이라는 이 치욕적인 心性을 언제나 버리게 될런지?

環境汚染의 경우도 그렇다. 個人的으로만 우수하다 보니까, 利己心만 높아, 나 아닌 남이나, 우리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어떻겠느냐? 정도가 아니다. 남이야 무엇이 되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個人意識 때문에, 그 個人 하나, 하나가 모여 사는 共同이 파괴되고 汚染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어도 이쯤되면, 가히 세계적이 아닐 수 없다. 왜 集團속에 個人이 형성됨을 自覺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光復 39周年!

1年 후면 40年이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벌써 철들고도 남을 나이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의 環境은 保全되어야 하고, 철든 成人으로 대접 받기 위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祖國愛, 責任感 그리고 共同體意識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39周年 光復節이다. *